



물맷돌중앙교회 안호성 목사
주강사로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 예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총회와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산상 성회'가 오는 8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2박 3일간 성결대학교 8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는 예성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 심령의 회복과 교단의 부흥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력한 말씀의 잔치, 영성 있는 강사진 포진

이번 성회의 주강사로서는 최근 한국 교계에 신선한 영적 바람을 일으키며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안호성 목사(물맷돌중앙교회)가 나선다. '물맷돌 부르짖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 목사는 지난 2024년 성회 당시에도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끼친 바 있어, 올해 다시 한번 강단에 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오전 집회 역시 교단의 영적 리더들이 책임진다.

▶**첫날 오전** 교단 총회장이자 목회 부흥의 현장 증인인 이종만 목사(생명수샘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둘째날 오전** 교단 내 교회와 기관, 목회자와 평신도를 하나로 잇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이음목회연합회 회장 최윤영 목사(거북한씨성동교회)가 강단에 오른다. 하루의 시작을 깨우는 새벽 집회 또한 은혜의 깊이를 더한다.

▶**셋째날 새벽** 안양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를 맡아 눈물의 기도로 부흥을 일궈낸 장동규 목사(더사랑교회)가 나선다.

▶**둘째날 새벽** 군복 전역 후 농촌 교회에 부임하여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단단한 지역사회 중심 교회로 성장시킨 유신 목사(신암교회)가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

• 연합과 동역으로 준비되는 성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주최하고 예성부흥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성회는 교단 내 기관과 지방회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치러진다.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박사와 남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차천용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혜경 권사)가 적극 협력하며, 매 저녁 집회는 각 지방회와 연합회가 주관하여 풍성함을 더한다.

▶**첫날 저녁** 31개 교회가 뜻을 모은 '이음목회연합회(회장 최윤영 목사)'가 주관한다.

▶**둘째날 저녁** '경기지방회(회장 한민기 목사)'가 주관한다.

▶**셋째날 저녁** '인양지방회(회장 이승균 목사)'와 '인양중앙지방회(회장 김종준 목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연합의 모범을 보인다.

예배의 문을 열 뜨거운 찬양 라인업도 기대를 모은다. 새벽과 오전 집회는 성회 초창기부터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하며 동역해 온 신월동성결교회(고신원 목사) 오병이어 찬양팀이 맡는다. 영성이 넘치는 저녁 집회의 찬양 인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디옥교회(홍석영 목사) Antioch Worship(안디옥워십팀)이 맡아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할 예정이다.

• "교단 장년 수련회의 브랜드로 자리잡길"

제43회 예성부흥사회 임원들은 이번 여름산상성회가 단순히 지나가는 집회를 넘어, 교단 내 장년 성도들을 위한 '대표 수련회'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주일학교의 여름성경학교, 학생회의 청사위수련회, 청년대학부의 성청수련회처럼 장년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기도할 수 있는 교단적 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성회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2년 뒤 성결대학교 내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전국 각지에서 장년 성도들이 모여 숙식을 함께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성령의 불과 바람, 능력을 체험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장년 영성 수련회'로 대전환을 이룰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제43차 예성 여름산상성회, 8월 10일 성결대서 개막

예성부흥사회 측은 "8월 둘째 주, 예성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결대학교 80주년 기념관을 주목하고 함께 모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지금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설 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고 간절한 초청의 메시지를 전했다.

(12면 광고 참조)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부흥분과 부흥사회 임원회의 개최

임원수련회 개최, 내년 2월 캄보디아 성지방문 및 집회 등 주요 안건 결의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부흥분과 부흥사회는 지난 7월 3일(금) 오전 11시 서울 한우리교회(윤창용 목사)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한성연 회원 교단들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함께 동역할 것을 다짐했다.

■ 1부 예배 : '부흥의 역사, 우리가 이어가야'

회의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복합수 목사(기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다 함께 제창한 후, 이상복 목사(예성 대표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말씀을 전한 윤창용 목사(기성 대표회장)는 "부흥사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는 늘 함께 흘러왔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이 영적인 바톤을 굳건히 이어받아 시대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성연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불 일 듯 일어나도록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자."고 간절히 당임을 전했다. 예배는

백석현 목사(나사렛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 2부 임원회의 : 임원수련회 및 해외 성지방문 등 안건 처리

임원회의에서는 각 교단 부흥사회 임원단을 소개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안건 토의에 들어갔다.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임원수련회는 기성 부흥사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해외 성지방문 및 집회는 2027년 2월 중 캄보디아로 추진(예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획과 준비는 기성 부흥사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한성연 부흥사회 전체수련회(예정) 준비 역시 기성 부흥사회에 위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 3부 친교 : 끈끈한 동역의 시간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한우리교회와 윤창용 목사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 정식으로 오찬을 함께 나누었으며, 정성 어린 선물과 함께 카페로 자리를 옮겨 화기에애한 교제들이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자주 만나 뜨겁게 부흥을 꿈꾸며 동역하자"고 뜻을 모았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예성부흥사회 김영국 목사 제공)

2026 THE WAY

CONFERENCE

THE WAY

JOHN 14:6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The Way Truth Life

성청 연합 수련회. 2026년 8월 15일 (토) 성결대학교 80주년기념관

주최
예성총회·성청

주관
장년부 및 성청 사역위원회

대상
예성 청년 1,200명(신청자)

신청기간
등록 접수 마감일 8/5

등록 접수
회비 ₩30,000

문의
장년부 담당: 010-4372-2564
성청 담당: 010-3691-7871

등록 접수 인원
티셔츠 제공

회비 납입 기준

2026 THE WAY CONFERENCE